

나주시, 쓰고 남은 폐농약 무상처리

전용 수거함 읍·면·동 20곳 수거함 설치·운영 폐의약품 이어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 처리



나주시가 폐의약품에 이어 쓰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안전한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는 환경 오염 주범이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인 '폐농약' 전용 수거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곳에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다 쓴 농약 용기류는 영농폐기물로 분류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됐으나 사용 이후 남은 폐농약의 경우 장기간 농가에 방치돼 눈·밭, 생활 주변에 버려지는 등 처리에 애를 겪었다. 이를 위해 설치된 폐농약 수거함은 액상(병

류), 고상(봉지류) 투입구를 구분했으며 잔여 농약이 유출되거나 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밀봉 배출이 가능토록 제작됐다.

폐농약 용기는 관리 부주의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읍·면·동 담당자의 입회하에 배출해야 하며 매주 수요일 회수·처리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쓰다 남은 폐농약이 버려지면 생태계 교란과 환경 피해는 물론 급성 중독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자일 선순환을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나주를 만드는 생활폐기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앞서 지난 7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나주우체국·우체국공익재단·나주시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을 집배원이 안전하게 회수하고 지자체가 처리하는 수거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집배원은 우체통과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용함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지정 장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폐의약품을 처리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 교육생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맞춤형 브랜드 개발·홍보 리플릿

화순군은 오는 4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리플릿 만들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까지 총 6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1층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군은 SNS를 활용한 농가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추세(트렌드)에 맞춰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 농업인 스스로 맞춤형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강의로 구성

하였다.

교육 신청은 11월 27일부터 방문 혹은 전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 안내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역량개발팀(061-379-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농업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및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간전면, '100세 시대, 농업인의 인생 설계' 위한 명사 초청 강연회

구례군 간전면은 11월 25일 다목적면민회관에서 '100세 시대, 농업인의 인생 설계와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령별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설계,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천 팁 등을 공유했다.

강 대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 부회장, 트러스투자자산운용 연구포럼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노후 설계 전도사로서 전국을 누비며 전국

민 자산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주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면민회관을 가득 채웠다.

강연회를 주최한 주민자치 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농업인 100세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후 대비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한 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대나무공예 전수 교육생 20명 모집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수강료·교육교재·작업 도구 등 무료 지원

담양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나무공예 전수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담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대나무공예 교육 기회를 제공해 대나무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과 대나무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매년 대나무공예 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공예 계승자 전수교육장에서 주 1회 진행하며, 수강료와 대나무 원목 및 교육교재, 작업 도구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3명의 대나무공예 명인(김성수, 노순걸, 서석근)이 교육을 진행하며, 대뜨기와 기

본역류 등의 기본교육을 진행한 후 소쿠리, 시장바구니, 말석, 샷갓 등 희망 품목을 교육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담양군민 중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희망자는 누구나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한국대나무박물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공공시설사업소(☎061-380-29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삼계면 주민자치위, 임실치즈마을 선진지 견학

임실치즈마을 운영리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활동 사례 공유

장성군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삼계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활동 사례를 공유한 데 이어 현장 탐방 시간을 가졌다.

박흥렬 주민자치위원장은 "임실치즈마을 우

수사례 답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의제를 발굴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립 6년차를 맞이한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인 마을환경 정화를 비롯해 상무평화공원 '어울림 음악회', 팽립덤 장미공원 '우리동네 한마음 축제' 개최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